

中國 對韓政策의 變化

—1980~1987의 變化를 중심으로—

米 榮 順

I. 序言

權益

II. 對韓政策의 變化

IV. 韓中 關係改善의 한계

III. 韓國(韓半島)에 대한 中國의

V. 結語

I. 序 言

東歐 各國에서 自由化의 요구가 높아지고 改革이 進行되고 있고, 한국과 東歐와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졌다. 소련의 高位人士들이 한국과의 經濟交流 확대에 대한 희망을 계속 표시하는가 하면, 韓國의 UN 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바로 이러한 때에, 金日成이 北京으로 暗行했다. 며칠후 中國은 한국의 UN가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北京에서 天安門事件이 났진, 金日成이 北京을 다녀왔진, 韓中關係는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 이는 分斷의 一部인 한국이 그 주위환경에 적응해 가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韓中關係를 中國쪽에서, 즉 中國의 對韓政策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中國의 對韓政策”에 대해 概念定義를 내리지는 않겠다. 國交가 없는 상태에서, 中國은 承認의 效果가 발생될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고 있다. 따라서 中國의 公式的 對韓政策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이곳에

서는 가장 광범하고, 日常的 의미로서의 對韓政策과 그 變化를 살펴보고자 한다.

1988년부터 韓國의 政治狀況은 달라졌다. 中國에서 韓國政府의 正統性을 是非할 이유가 없어졌고, 韓中交流도 느린 속도이긴 해도 꾸준히 진전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變化가 두드러졌던 1980年에서 1987年까지의 變化推移에 대해 분석하고, 中國이 對韓關係에서 갖는 權益과 限界를 검토하여 우리의 對中國 자세를 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對韓政策의 變化

1980年代에 들어온 후, 中國은 여러가지 機會와 影響 속에서 그 對韓 태도를 변화해 왔다. 물론 아직까지도 北韓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韓國과의 關係改善의 속도가 상당히 느리지만, 1970年代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있다.

中國은 1970年代末부터 韓國의 經濟發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¹⁾ 약간의 간접무역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兩國의 關係發展에 決定的 機會가 되었던 것은, 1983년 5월에 발생하였던 民航機 납치사건이었던 것 같다.

1. 年別趨勢

1980년 : 少壯派 군인들이 집권한 후, 다시금 軍政이 出現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시위를 계속했고, 政治的 요인까지 混入되어 國內情勢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中國은 이를 “愛國人民自由抗爭”이라 규정하고, 이를 진압하는 政府當局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中國은 우리 政府를 “파시스트集團”·“全斗煥集團”이라 호칭했고, 金大를 “民主人士”라 찬양하였다.

1) 1978년 7월 7일 新華社의 고위 간부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바 있다.

1981년 : 韓國의 政勢가 안정을 회복해갔다. 新政府는 北韓을 향하여 會談 개최를 제의하였고, 中國과 關係改善할 意思가 있음을 표시하였다.²⁾ 韓國에 대한 中國의 비난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示威에 관한 報導도 고무·찬양하는 태도에서 客觀的 事實의 전달로 바뀌어갔다.

1982년 : 中國은 청진항을 통한 對日貿易을 위해 北韓과 交渉을 진행하였고, 韓國에 대한 報導 태도는 다시 惡意를 띄게 되었다. 5월에는 光州事態를 들어 우리 政府를 맹공격하였다.

아시아 體育界에서 韓國과 中國은 強國에 속했고, 자주 승부를 거르게 되었지만, 中國은 이에 관한 보도에 매우 인색하였다.

1983년 : 5월에 民航機 납치사건이 發生하자, 談判을 요구하는 中國의 태도는 매우 다급했다. 第三國을 거치지 않고 직접 “大韓民國 外務部”를 향하여 打電하였으며, 우리의 回答이 있기 前, 모두 8번이나 打電해왔는데 이는 예상 밖의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韓國 言論界는 한바탕 中國熱을 앓았지만, 中國의 言論은 침묵으로써 韓國의 好意에 보답했다. “大韓民國 外務部”를 향해 교섭을 요구할 때와는 달리, 줄곧 “南朝鮮當局”이라 호칭했다.

中國은 北韓을 달래야만 했다. 吳學謙을 파견하여 一年餘 끌어오던 청진 使用問題에 合意를 달성하고 中國에서 열리는 國際會議에 한국 대표의 출석을 두번이나 거절 등이 모두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일은, 납치자에 대한 1·2審 判決 結果에 中國은 不滿을 표시하지 않았다. 人民日報는 잘못하게 “有關人士指出不符合海牙公約”(관계人士가 헤이그조약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라고 보도하였는데, 同紙의 비방 慣行에 비추어 보면, 不滿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좋을것 같다.

1984년 : 韓中交流의 가능성을 보인 획기적인 일들이 있었다. 中國은 처음으로 韓國人의 친척방문을 허용했고, 昆明市에서 韓中 정구대회가 열렸

2) 대통령과 외무부장관이 각각 외국 기자를 접견하면서 이런 뜻을 밝혔다. 서울신문 1981년 3월 31일(5면), 4월 7일(1면).

으며, 우리 축구협회 임원들이 中國에서 열린 會議에 참가하고, 中國은 아시아靑年배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선수단을 서울에 파견했다.

美日 등 各國이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였지만, 中國의 言論은 여전히 냉담하였고, 中國當局은 兩國의 關係改善과는 無關하다고 누누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中美關係正常化에 탁구대회라는 前兆가 있었음을 상기할 때 가볍게 보아 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 第三國에서 열린 國際會議(혹은 行事)에서 마주쳤을 때, 中國이 好意的인 태도를 보이는 例가 外信이나 國內 新聞에 자주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1985년 : 어뢰정사건이 발생하여 兩國 關係發展에 보탬이 되었다. 홍콩에서 交涉을 마친 후, 中國은 홍콩주재 “大韓民國 總領事”에게 領海 침입에 대해 謝過(apology)각서를 전달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을 방지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여 韓國人을 만족시켰다.

人民日報는 民航機事件 때 沈圖가 “南朝鮮當局”에 감사를 표했다고 보도하였고, 어뢰정사건에서는 “南朝鮮方面”에 대한 감사를 보도하였다. 軍用機 조종사 방명이 몇번 있는 후, 원하지 않는 다른 두 사람까지 강제로 데리고 오다 추락한 사건이 發生했다. 韓國은 願하지 않은 두사람(한사람은 사망)을 中國으로 送還하였고, 中國 外交部는 “南朝鮮”에 감사한다고 발표하였다. 中國의 態度變化의 一斑을 엿볼 수 있다.

1986·87년 : 韓國의 政情은 다시금 복잡해지기 시작하였다. 改憲과 護憲이 충돌하고, 內閣制 구상과 대통령 直選制의 요구가 對立하였다. 學生示威과 勞使紛糾 등 80年 당시의 혼란을 방불케 했지만, 人民日報의 보도태도는 이미 달라져 있다. 비교적 상세히 보도하고 學生과 在野人士들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과격한 선동적 用語를 별로 쓰지 않았고, 韓國政府에 대해서도 비방을 삼가고 있다.

2. 變化의 類型

中國 자신의 變化와 必要, 韓國의 적극 노력 및 國際情勢의 변화에 따

라, 韓國과 中國의 關係型式에도 變化가 일어났다. 비록 兩國 關係의 進展 속도가 아직도 느리고, 潛在하고 있는 問題가 많지만, 兩國의 왕래는 꽤 빈번해졌고, 특히 政經分離에 입각하여 交流를 보다 쉽게 만들고 있다. 中國의 變化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보기로 한다.

● 對韓誹謗의 감소

과거 韓中關係는 南北關係 못지 않는 敵對感으로 특징지어져 있다. 상대를 증상하는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고, 이 점은 中國이 더욱 그랬다.

1980년 : 대통령 有故 후의 過渡政府도 治安을 유지하기 위하여 民衆의 시위를 강제진압하였고, 中國은 “殘酷鎮壓・迫害人民”은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全斗煥의 新政府에 대한 中國의 비방은 극에 달했다. “파시스트 軍部獨裁의 흉악 殘酷한 罪行이 國土를 피로 물들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1981년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비방은 감소되고, 대신 “軍政을 반대하는 愛國人民을 무리하게 鎮壓하고, 民主人士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論評하고 있다.

1986·87년간 鎮壓에 대한 비난이 있었으나, 6·29 宣言 이후 다시금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對韓 誹謗

時 期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上	下	上	下	上	下	上	下	上	下	上	下	上	下	上	下
誹謗內容																
迫害・鎮壓	7	2	1	0	1	1	0	0	0	1	0	2	3	1	1	0
殘酷・凶殘 悍然・暴行	3	7	2	0	0	0	0	0	0	0	1	0	0	0	1	0
비판																
파시스트・ 獨裁	2	5	1	0	0	0	0	0	1	1	2	0	0	0	0	0
無理・非法 罪行	2	3	1	0	0	0	0	0	0	0	1	0	0	1	0	0
비열・拙劣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도발	0	0	1	1	1	0	2	1	0	0	0	0	0	0	0	1
合 計	14	18	7	1	2	1	2	1	1	2	4	2	3	2	2	1

對韓國(政府) 稱呼

時期 稱呼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南朝鮮當局	7	17	0	2	3	1	8	5	1	1	2	1	2	5	3	3
全斗煥集團 (政權)	0	7	5	2	1	0	1	0	0	0	0	0	0	1	0	0
軍事獨裁 (統治)	4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法西斯政權	2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反動當局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漢成當局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現政權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計	16	24	6	4	4	1	9	5	1	1	2	1	3	7	3	4
計	0	1	0	1	1	0	5	4	0	0	1	5	0	1	0	2
南朝鮮	0	1	0	1	1	0	2	4	0	0	0	3	0	1	0	2
南朝鮮方面	0	0	0	0	0	0	3	0	0	0	1	2	0	0	0	0
※南朝鮮當局	6										1					

• 呼稱의 變化

中國은 韓國을 承認하지 않고 있으며, 韓國政府의 合法性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이나 政府機關을 指稱할 때, 가능한한 그 地位를 훼손코자 하였다. 1984년 호주 수상이 中國을 방문하였을 때, 趙紫陽이 처음으로 韓半島에 두개의 政府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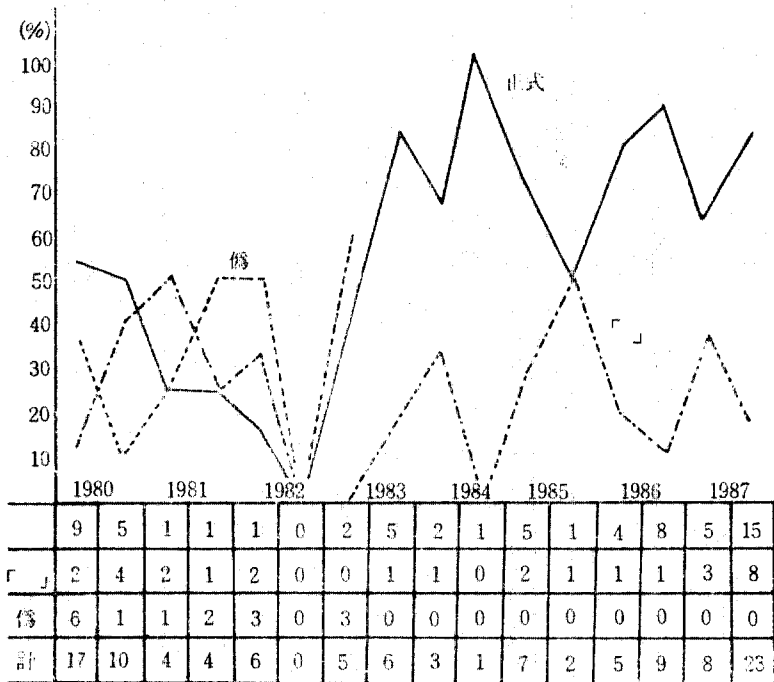
(1) 政府에 대한 呼稱

韓國政府에 대한 호칭은 기본적으로는 “南朝鮮當局”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기도 한다. 地理的 개념일 때에는 물론 “南朝鮮”이라고 쓰지만, 한국과 第三國(北韓은 제외)을 같이 이르는 경우에도 그냥 “南朝鮮”이라고 쓰고 있다. 韓中關係에서 中國의 對象으로서 한국을 부를 때는, “南朝鮮當局·南朝鮮方面 및 南朝鮮”의 세가지가 쓰여진다.

그러나 國際的인 장소에서는 부득불 公式 명칭을 쓰고 있으며, 昆明市에서 정구대회를 가졌을 때에는 “韓國·中國”으로 表記하였다.

(2) 政府機關에 대한 호칭

1980년 初, 각 기관의 명칭 앞에 “僞”字를 넣어, 韓國政府가 不法集團임을 강조코자 하였다. 例를 들자면 “僞警察”·“改組僞內閣”·“美軍과 僞軍聯合”식이다. 그러나 1983년부터는 “僞”字가 자취를 감추었고, 명칭에 引用符號를 쓰는 回數도 점차 줄어들었다.



한국 機關名에 대한 칭호

(3) 南北韓을 함께 부를 때

기본적인 형태는 “朝鮮北方과 南朝鮮當局”이나, 談判 중인 南北을 부를 때는 “朝鮮南北方” 혹은 “北方과 南方”이다. 韓國이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 北韓만을 부를 때는 “朝鮮”이라 하고 있다.

中國은 南北韓과의 三角關係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나타내고 있다. 1984·85년에 南北韓은 네종류의 會談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中國은 “南朝鮮·北朝鮮”이라는 명칭을 여러번 썼다. 명칭을 보면 바로 느낄 수 있듯이, “南朝鮮·北朝鮮”은 “朝鮮南北方”보다 두개라는 개념이 훨씬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동안 中國은 韓半島의 現實을 억지로 外面해왔지만, 서서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方向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1985년부터 “南北”의 순서를 거꾸로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韓國이나 中國의 언어습관은 예로부터 “南北”이라고 써왔지 “北南”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中國이 韓國에 대해 엄청난 敵意를 품고 있었을 때에도 줄곧 “南北”으로 써왔으나, 이제 북한에서 쓰는 “北南”을 받아들인 것이다. 어째서 1985년에 이르러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 北韓의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中國이 北韓을 무마하기 위하여 스스로 채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韓中 關係改善에 갈려있는 어려움을 짐작케 한다.

南北韓에 대한 호칭 변화

南北韓을 동시에 부를 때																
時期 區分																
朝鮮北方 南朝鮮當局	1	1	2	5	2	1	2	4	1	7	5	5	0	3	1	1
朝鮮 南 朝 鮮	1	1	1	0	1	1	1	1	4	7	6	6	0	0	0	3
南北이 北南으로																
南北對話 (南北方)	7	1	0	0	0	1	1	1	1	9	3	1	0	0	0	0
北南對話 (北南方)	1	0	0	0	0	0	0	0	0	0	8	28	0	1	2	4

3. 韓中交流³⁾

韓中交流는 大別하여 經濟交流·國際行事に 代表交換 및 친척방문의 셋으로 나눌 수 있다. 當初, 國際行事に 서로 代表를 파견하기 시작한 것이 韓中關係 改善에 중요한 作用을 하였지만, 昆明 정구대회 이후로 兩國만의 直接交流가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오늘날의 國際社會에서 理念에 상관없이 國際의 活動에 同參하는 것은 普遍화된지 오래이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分析은 생략한다.

● 韓中經濟交流

韓國經濟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해 왔다. 歐美 保護主義 압력의 加重·生産性を 웃도는 임금상승·NICS間 競爭의 가열화·中國과 東亞國家들의 추격 등, 이들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방법으로 東歐 등 共產國家의 市場開拓을 위해 노력했다. 그동안 약간의 成果를 거두었으나, 韓國의 特殊狀況 때문에 비공개로 進行된 것이 많아 資料入手가 쉽지 않다.

아직까지도 韓中貿易의 대부분은 間接方式으로 進行되고 있다. 홍콩이나 日本·싱가폴의 무역상사를 통해서, 혹은 中國에 있는 第三國의 代理店을 이용하여 거래된다. 그러므로 韓國이 中國에 수출한 금액은 홍콩의 對中國 수출통계에 기록되는 것이다. 韓國은 1970年代末부터 中國과 간접교역을 시작했고, 1981年 副總理가 國會에서 처음으로 이를 시인하였다.⁴⁾

韓中 兩國은 雙方의 交易이 비단 金錢上의 이익이 있을뿐 아니라, 兩國 産業構造의 차이로 經濟發展에 보완적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데에 認識을 같이했다. 韓國은 高度成長을 유지하기 위하여 中國市場의 潜在力과 풍부한 資源에 관심을 가졌고, 中國은 그 現代化 目標達成에 韓國의 발전

3) 交流라는 말이 一般 國際關係에서의 交流와는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적대관계에 있던 雙方이 部分的으로나나 往來가 이루어지고 있는 狀況을 交流라는 말을 빌어 설명키로 한다.

4) 申秉鉉 부총리의 國會 발언, 서울신문, 1981년 11월 18일 1면.

경험과 보다 값싼 產品과 技術이 必要했다.

韓中貿易은 第三國에 利益의 一部를 떼어주면서도, 1984년 이후 급격히 증가되었다. 胡耀邦도 同年 11월에 이를 인정하였다.⁵⁾ 이제까지 알려진 資料의 推計를 보면, 1980년 雙方의 貿易總額은 약 188백만 달러였고 1984년에는 462백만 달러로 증가되었다. 1987년에는 3,200백만 달러가 되었다. 상당한 伸張勢를 나타내고 있다. 1986년 통계에 의할것 같으면, 이미 北韓—中國의 貿易額을 2.6배 앞지르고 있고, 韓國의 對共產圈 무역의 78%를 韓中貿易이 차지하고 있다.

韓國—蘇中 貿易現況

(百萬：美貨)

年 度	貿 易 總 額	輸 出	輸 入	收 支
1979	18.8	4.0	14.8	-10.8
1980	187.9	115.0	72.9	42.1
1981	352.7	205.0	147.8	57.2
1982	128.8	48.0	80.8	-31.2
1983	133.9	51.0	82.6	-31.3
1984	461.7	229.0	232.6	-3.4
1985	1,291.8	682.8	607.0	73.8
1986	1,395.4	714.9	680.5	34.4

그러나, 韓中貿易이 순조롭게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韓國 副總理가 兩國間の 간접무역을 시인하고 난 뒤, 北韓은 中國에 抗議했고, 1982·83년 兩年間 雙方貿易은 현저하게 감소되었었다. 1984년 民航機 납치사건이 있은 후, 韓中關係는 여러 면에서 進展이 있었는데, 雙方貿易 또한 交易量에서 뿐만 아니라 交易方式에서도 改善되었다.

第三國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交易이, 1986년에 와서는 부분적으로나 마 輸出商品을 中國의 目的地까지 직접 送達하게 되었다. 對中國 貿易의

5) 서울신문, 1984년 1월 27일, 3面.

40%는 이런 直接送達 方式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中國은 政治的 혼란에서도 經濟開放 정책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天安門事件의 와중에서도 한국에 代表團을 보내 우리 企業의 參席을 요구하기로 했다. 外交關係가 없어 不安한 요소가 있고, 많은 企業家들이 아직도 망설이고 있지만, 이미 合作投資로 設立된 공장에서 生産을 시작한 企業도 있다.

● 친척방문

1965년, 當時 농림부 장관 車均禧의 父母가 韓國으로 아들을 보러온 것이, 在中 교포 친척방문의 첫번째였다. 1974년 9월, 韓國政府는 적극적인 조치를 선포하여, 北韓·월맹을 제외한 모든 國家와의 통신을 허락했다. 中國도 이 조치에 부응, 中國의 韓人들이 國際赤十字社와 한국방송공사를 통해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또한 1978년에는 在中韓人이 우리 政府의 동의를 얻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1984년까지 이미 193명이 고향을 방문했고, 그중 101명은 아주 귀국하여 살게 되었다.⁶⁾

日本 나카소네 총리가 1984년 中國을 방문하여 趙紫陽과 회담할 때, 韓中兩國에 거주하는 韓人이 相互 친척방문하는 問題를 제의했고, 趙紫陽도 이를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까지 친척을 찾아 中國으로 가는 사람보다는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아, 每年 수백명에 달한다고 한다. 알려진바로는 韓國의 가족이 초청장을 보내주면, 中國政府가 여권을 발급하는데까지 한달 반가량 걸린다고 한다.

韓人間의 왕래가 많아짐에 따라 在中韓人들의 本國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延邊大學 도서관에서는 한국에서 전해온 서적들을 열람할 수 있다. 그들은 本國의 文化나 知識을 좀더 많이 얻고 싶어한다. 韓國의 노래나 상품들이 그들의 아픔을 받고 있는 것이다.

6) Ibid., 1984년 3월 25일.

Ⅲ. 韓國(韓半島)에 대한 中國의 權益

韓中 양국은 地理·文化的으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漢西郡의 설치 및 오랜 朝貢關係로 中國은 韓國에 대해 特殊한 感情을 지녀왔다. 韓國을 “同文同種”으로 여기는 心理的 要因과 實際의 利害가 서로 얽혀, 中國의 對韓(韓半島)政策의 背景을 構成하고 있다. 但 이 연구는 中國이 韓國에 대해 갖는 情緒의·歷史的 要因은 다루지 않고, 實際의 權益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1. 戰略利益

戰略이란 Strategia 라는 軍作戰과 관련된 말이지만, 國際關係에 있어 國家利益·國家目標과 더불어 가장 널리 쓰이는 개념이 되었다. 대부분의 정치학 용어가 그러하듯, 戰略에 대한 定義도 다양하지만, 여기서 中國의 戰略이란 自主·獨立 의고를 표방하여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美日과 연합하여 對蘇 지지력을 강화하고, 또한 美日蘇 등과 경제·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여 國家目標 달성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으로 규정한다.

한국은 별로 영향력은 없지만, 國際政治上的 특수 입장 때문에 中國에 대해 충분한 戰略價値를 지닌다.

과거 韓中 양국관계가 긴밀했던 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戰略關係였다. 古代 中國의 주요 침략자들은 몽고高原에서 온 경우가 많았고, 그들은 中原을 치기 전에, 먼저 한국을 향해 友好를 강요하였다. 한반도가 갖는 戰略價値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中蘇 충돌이 발생하자 북한의 전략지위는 상승하였다. 비록 調整者(balancer)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한편으로 접근함으로써 局勢에 영향을 미쳤다. 中國은 그 對蘇地位를 강화하고, 만주 공업지대의

안전을 위하여 북한이 自國의 편이기를 바랬지만, 金日成은 中立 또는 徘徊政策으로 상황에 따른 慎重戰略(a strategy of caution)과 機會戰略(a strategy of opportunity)을 운용하였다.

이처럼 예로부터 中國에 대한 한반도 전략가치는 상당히 높다. 만주가 중요할수록 더욱 그렇다. 만주는 자원이 풍부한, 中國 공업의 중심지일뿐 아니라 華北의 중요한 방어기지가 된다. 1948년 林彪의 제4야전군이 만주에서 승리하자 華北은 방어력을 잃었고, 共軍은 全域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소련은 國境의 육군과 태평양함대로부터 만주를 위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中國은 만주의 군사력 증강에 열심이었고, 한국과 오키나와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해 왔으며, 美第七艦隊의 초계활동이 강화되어도 비난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련의 對中國 포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도 中國에 대해 전략가치를 갖고 있다. 소련은 不凍港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크리미아전쟁(1853~56)·露日戰爭(1904~1905)을 일으켰으나, 모두 좌절되고 말았다. 理論的으로만 따지자면, 소련이 한국에서 海軍基地를租借하여 태평양과 인도양을 그 세력권에 두고, 中國은 물론 美日까지 위협할 수 있다. 東海와 黃海에서 制海權을 장악하여 旅順과 上海의 中國艦隊의 발을 묶어놓고, 나아가 中國의 全海岸을 봉쇄하여 第三國이 戰場에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한해협은 소련의 태평양함대가 인도양에 이르는 最短 길목인데, 한국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2. 政治利益

Hans Morgenthau 은 國際政治를 權力爭奪로 보았다.⁷⁾ 中國이 끊임없

7)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5th ed. (N.Y.: Alfred A. Knopf Inc., 1973), p.27.

이 反帝·反植民 또는 民族解放을 부르짖는 것도, 결국은 權力(혹은 영향력) 확대를 위한 투쟁인 셈이다.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中國은 美蘇와 권력투쟁을 벌이었다. 그 내용과 결과를 살펴보자.

美國과 對等한 지위를 획득

韓國戰爭에 관련된 文獻과 著述은 수도 없이 많지만, 누가 戰爭을 發動했는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中國이 參戰하기는 하였으나 戰爭을 유발시켰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것 같다.

우리의 관심은 中國이 戰爭을 劃策했느냐에 있지 않고, 參戰의 결과 무엇을 얻었느냐에 있다. 當初, 毛澤東은 駐中 인도대사에게 韓國戰爭은 “遠處之事”(a distant matter)⁸⁾라고 하였고, 人民日報도 이틀이 지나서야 韓國戰爭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仁川 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英國과 印度가 原狀恢復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美國이 韓國統一을 강조하자, 中國도 강경한 자세를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周恩來는 北京駐在 印度大使에게,⁹⁾

유엔군이 만일 38線を 北上한다면, 中國은 韓國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한국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노라고 했다. 말하자면 參戰理由(casus belli)를 밝힌 것이다.

中國이 參戰한 후 戰勢가 역전되었고, 세계적으로 停戰 여론이 비등해졌다. 共黨聯合軍에 유리한 상황에서 북한과 소련은 停戰提議를 거절하였지만, 中國은 달랐다. 三者間에 갈등이 생겼는지, 中國이 이미 그 目的을 달성했기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알길이 없지만, 흥미있는 것은 停戰에 대해 中國이 요구하는 先決條件이다. (1) 모든 外國軍의 完全撤收, (2) 臺

8) New York Time, Jul. 15, 1950.

9) K.M. Panikhar, In Two Chinas: Memoirs of a Diplomat(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5), p.108.

灣의 中國에로의 귀속, (3) 中國의 UN 代表權 등이다.¹⁰⁾

이로써 당시 中國參戰의 목적이 世界革命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진다.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이 中國은 그 安全을 위하여 參戰했다고 주장해왔다. 筆者도 이를 지지하지만, 당시 中國의 정책결정자들이 臺灣問題에 보인 집착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美國의 對中國 봉쇄정책으로 中國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었지만 停戰會談의 一當事國이 되어 美國과 對等한 지위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었다.

中國이 美國과 談判하는 과정에서, 한국문제와 대만문제를 置換하려던 형태는 最近에도 보이고 있다. 1984년 1월, 趙紫陽이 訪美에서 얻은 성과는 2件的 기술합작협정에 불과했고, 최대 장애는 臺灣問題였다. 그러나 中國은 북한의 三者會談을, 미국은 四者會談을 각각 주장하여,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中國의 입장이 상당히 돋보였었다.

소련과 同等한 권리를 享受

1960年代, 中蘇衝突 중에 북한이 겪은 어려움은 상당했다. 等距離의 神話를 만들어 내기는 하였지만, 이는 金日成이 진실을 숨기는데에 성공했던 것 뿐이다. 筆者는 等距離라는 말 대신 徘徊라는 말을 쓴다(一定 범위 내에서의 長期間의 배회는 결국 等距離에 귀납되겠지만). 북한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等距離神話”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中蘇 兩國이 북한의 徘徊를 묵인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中國은 한국전쟁에 참가하여 북한을 위기에서 구해준 뒤, “血盟之友”로서 “解放者” 소련과 견줄만한 지위를 굳혔다. 中國은 소련과의 갈등이 심각할 동안, 북한이 소련에 기울지 않도록 막는 데에 성공하였다. 소련은

10) Robert R. Simmons, *The Strained Alliance: Peking, Pyung Yang, Moscow and the Politics of the Korean Civil War* (N.Y.: Free Press, 1975), p. 199.

中國보다 더 많은 軍經援助를 제공하면서도, 中國을 너무 자극하지 않도록 對北韓 접근에 신중하였다. 中國이 中蘇友好條約을 폐기한 후에도, 북한은 이 두나라와 각각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中蘇 양국은 북한에 있어 다같이 중요한 盟邦인 것이다.

북한의 후견인적 역할

일반적으로, 북한은 소련으로부터는 軍經援助를, 中國으로부터는 정신적·정치적 支援을 얻는 것으로 말해진다. 1960年代, 후루시초프는 스탈린 격하운동에 반대하는 金日成에게, 軍經援助를 무기삼아 압력을 가하려 하였다. 이때 中國은 정신적·외교적으로 북한을 지지함으로써, 소련과 一長을 겨루었다.

1963년에서 64년의 一年餘는 中國의 對外發展에서 빛나는 한 해였다. 周恩來·陳毅 등이 亞阿 여러 나라를 돌며, 民族主義·地域感情을 부추겼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련은 폴란드·헝거리事態로 비난을 받고 있었다. 북한은 中國을 따라 소위 第三世界를 향하여 平和政勢를 폈다. 亞阿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友好關係를 수립·발전시킬 것을 對外政策의 重點으로 삼는다고 선언했다.¹¹⁾ 1964년, 제 2차 아시아經濟討論會를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中國의 후원 아래 이루어진 이 行事는, 그 政治的意義가 상당히 크다.

北韓의 外交行態는 기본적으로 中國과 비슷하다. 平和共存·反帝 및 反植民地鬭爭을 주장하며, 民族解放運動을 지지한다. 주로 人民鬭爭 방법을 운용하여 1970年代 前半까지에는 괄목할만한 外交的 成果를 거두었다.

최근, 소련과 東歐에서 진행되는 革命的 變化가 世人을 어지럽게 하고, 한국과의 접근이 뚜렷해지자, 金日成은 中國을 찾아갔다. 中國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韓國의 UN 가입을 막겠다고 발표하여, 북한이 더 이상 비참

11) 제 4차 노동당대회에서 金日成이 한 연설(1961년 9월 11일), 북한 대외정책 기본자료집(東亞日報社 안보통일문제연구소, 1976), pp. 274~275.

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國內政治에 있어서도, 傳統이나 정치문화의 유사성 때문에, 북한은 中國의 것을 본보기로 삼는 경우가 많다. 社會主義 경제건설의 방법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른바 천리마운동이란, 自力更生을 강조하는 中國의 大躍進運動과 그 目的·열성·혁명정신의 고취·政治統合 및 人民을 動員管制하는 방법 등 모든 면에서 흡사하다.

그후 中國은 단지 勞動力에만 의존하여 經濟를 건설하려는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先進 기술과 자본을 흡수하려 하였다. 그러나 文革 후의 國內政治의 不安定·資本主義 경제에 대한 인식부족·경험부족 위에 西方의 資本家들도 未知의 中國에 선뜻 투자하기를 꺼려 試行錯誤를 겪었다. 鄧小平의 재등장 후, 1979年末 「中外合資企業經營法」을 公布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였다. 中國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자 북한도 1984년 「外國合作投資經營法」을 발표하여 對外開放을 선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은 中國의 경험을 면밀히 연구하였다. 많은 기술요원을 파견하였을 뿐 아니라, 金正日이나 姜成山이 中國을 訪問하였을 때에도 合資企業이나 經濟特區를 參觀하곤 하였다.

Ⅳ. 韓中 關係改善의 한계

中美和解가 이루어진 뒤, 中國은 國際政治에서 大國으로서 행세하기 시작하였고, 韓半島問題에 관해서 美國과 타협하게 되었다. 現段階에서 中國의 對韓半島 정책은, 美國과 마찬가지로 南北間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中國은 이제 한국과 非政治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韓中の 外交關係 수립에 대해서, 中國은 늘 時期尙早라고 말해 오고 있다. 사실 克服해야 할 장애가 너무 많다. 兩國 關係改善의 한계가 되는 몇가지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中國—北韓 關係

韓中 關係改善의 최대 장애는 물론 中國과 北韓과의 관계일 것이다. 中國은 “唇亡齒寒”이라는 말로 북한과의 관계를 묘사하고, 북한은 중국을 血盟之友로 추기고 있다. 서로 敵對중인 南北韓과 同時에 善隣關係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技巧가 필요하다. 더우기 북한의 뒤에는 中國이 늘 경계해 마지 않는 소련이 있어 狀況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

북한의 統一方案에 대한 일관된 支持

1950년, 志願軍의 이름으로 韓國戰爭에 참가한 이래, 한국의 통일문제에 관하여 中國은 무조건 북한을 支持해 왔다. 북한의 주장이 前後 相反되는 경우에도, 합리적 방법이라고 찬양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한국통일에 관한 북한과 中國의 공통된 견해는 대략 네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한국통일의 최대 장애는, “美帝”가 한국을 점령하고 그 內政을 간섭하기 때문이다. 둘째, 自主·平和·民主方式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自主가 가장 중요하다. 셋째, “두개의 韓國” 음모를 결사 반대한다. 넷째, 外勢의 간섭없이 南北談判을 통하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북한은 駐韓美軍의 철수를 끊임없이 요구하여 왔고, 韓國統一은 內政問題라고 주장하고 있다. 中國은 그 官報나 UN 측 非同盟會議에서 연설을 통해 北韓의 주장을 적극 支持해 왔다.

북한의 통일정책이란, 자신의 國力을 기르고 국제적 支持를 확보하는 한편, 한국에서 容共政府가 수립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會談·軍縮 등을 제의하며 平和攻勢를 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장도발을 하는 등, 폭력과 비폭력·合法과 不法의 모든 수단을 운용하고 있다. 武力統一 실패 후 北韓이 내놓은 통일방안이란, 결국 美軍撤收와 容共政府 수립을 전제로 하는 연방정부안이다.

북한과 中國 統一戰略의 공통성

北韓과 中國의 統一策略이란, 궁극적으로 革命力量을 기르고 赤化統一의 여건을 형성해 가는 것이므로, 약간의 差異가 있기는 해도 더 많은 공통성과 相關性을 갖게 된다.

우선 세가지의 공통점을 들 수 있다. 즉 自主原則의 강조·平和攻勢와 武裝威脅의 결합 및 外交攻勢와 직접담판의 동시 운용 등이다. 南北間의 최대 장애는 駐韓美軍의 존재로서, 북한은 그 철수를 先決條件으로 내세우고 있고 남한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까닭에, 20年間 南北對話를 해오면서도 그 성과가 미미한 것이다.

中美關係에서 최대 장애는 臺灣問題이다. 中國은 미국으로 하여금 “臺灣解放은 中國內政으로, 다른 나라는 이를 간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토록 하였다.¹²⁾ 한국의 통일문제에 관하여 “朝鮮人民의 自主·平和統一을 위한 투쟁을 절대 支持한다”라는게 中國의 公式 立場이다.¹³⁾

平和攻勢와 武裝威脅은 서로 고립된 것이 아니고 兩面性을 갖는다. 북한은 끊임없이 平和를 주장하면서도, 武裝挑撥 또한 멈추지 않는다. 1953년 이후 북한이 행한 武力活動은 십만번이 넘는 것으로 集計되고 있다.

中國의 통일책략도 평화와 무장을 동시에 운용하고 있다. 1979년 元旦에 中國은 “臺灣同胞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하여 會談과 交流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臺灣을 위협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鄧小平은 “만약 臺灣當局이 談判을 거절한다면, 武力使用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이다.¹⁴⁾

1970年代가 되면서 세계는 談判時代로 접어들었다. 北韓은 南韓과의 談判이나 交流를 추진하는 한편, 美國과 직접 회담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성공한다면 한국을 미국의 속국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가 클 것이다. UN 同時加入이나 交叉承認 方案은, 分斷의 永久化·두개

12) 上海 공동성명, 1972년 2월 17일.

13) 人民日報, 1984년 6월 25일·26일. 6.25, 中共軍 參戰 기념일 및 北韓의 통일 관련 활동이 있을 때마다 이런 기사가 실린다.

14) 文匯報(홍콩), 1979년 1월 15일.

의 韓國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中國도 비슷하다. 中國은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臺灣이 中國의 一部分임을 강조한다. 이로써 臺灣을 地方政府처럼 인식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臺灣의 對大陸政策은 公式的으로는 “三不”이다. 中國은 이를 “好戰”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과 中國의 統一策略은 공통성 말고도 相關性 및 相互依存性을 갖는다. 中國共產黨은 國民黨과의 투쟁에서 승리했다. 북한이 그로부터 배우는 策略이 적지 않다.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各政黨·社會團體의 代表者大會」나 「聯邦制」는 과거 毛澤東의 「聯合政府論」(1945년에 제의)과 「人民政治協商會議」(政府樹立 時期)와 비슷하다. 中國의 어휘를 그대로 借用한 例도 적지않아, 「革命力量」·「聯共政策」등을 쓰고 있다. 韓半島問題와 관련하여, 周恩來는 1971년 8월에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는데,¹⁵⁾ 이후 북한의 변함없는 정책의 하나가 되었다.

鄧小平은 對北韓 支持에 있어 毛澤東과 다를 바 없지만, 對南韓 정책에는 彈性과 現實性을 갖추고 있다. 中國은 한반도 문제를 國內部分과 國際部分의 둘로 나누어, 前者는 한국인들끼리 自主的으로 해결해야 하며, 後者는 美國의 침략으로 생긴 문제이므로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이 두가지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한다.¹⁶⁾ 이런 原則에 근거하여 北京 당국은 한편으로는 外勢의 不干涉을 주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中國은 韓國問題와 관련된 國際會議에 참여할 길을 터놓을 수도 있다. 中國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키고 있는 기본 원칙은 북한의 주장을, 그 사정이나 내용이야 어떻든 무조건 지지하되 전쟁 再發만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中國은 韓半島에는 이미 武力統一을 위한 객관적 조건이 없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¹⁷⁾

15) New York Time, Aug. 4, 1971.

16) FBIS, PRC, Sep. 11, 1979, p.D~Ⅲ.

17) Ibid., May 27, 1975, p.A~Ⅶ.

北韓의 소련 카드

북한은 中蘇 사이에 끼어있으면서, 三者의 利害가 서로 다르고, 北韓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中蘇 사이를 徘徊함으로써 어느 한쪽의 衛星國이 되는 것을 피해왔다.

1970年代에 들어 북한과 中國은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鄧小平이 재등장한 후 몇차례의 충격이 발생했다. 中國의 改革·開放과 非毛化 운동은 兩國의 우호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1978년 12월 31일 북한은 소련과 羅津을 통한 雙方的 貿易運輸量 확대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소련의 원조로 대대적으로 시설 확충을 시작했다.¹⁸⁾ 다음해 1월 소련을 방문중이던 副總理 朴成哲은 나진을 소련의 軍港으로 10년간 사용키로 했음을 시인했다. 이미 소련의 원조로 나진에서 소련 국경에 이르는 철도의 增設을 시작했고, 기타 수십개의 建設計劃이 진행중이라 했다. 그밖에도 소련은 북한의 T-26型 탱크생산을 지원하고, 미그 23機 생산을 위한 담판도 진행중이었다. 북한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내어 소련의 作戰을 지원했다.¹⁹⁾

북한과 소련의 무역도 대폭 증가되었다. 소련 발표에 의하면, 1978년의 雙方 무역총액은 552백만 달러였고, 1979년에는 30%가 증가하여 749백만 달러, 1980년에는 또 前年の 17.5%가 증가하였다(88천만 달러). 1982년 북한의 총생산중 電力의 63%, 石油製品의 50%, 철광의 42%가 소련의 원조에 의한 것이었다.²⁰⁾

1980년 5월, 티토의 장례식에 참석한 金日成은 華國鋒보다 브레즈네프와 먼저 회담했고, 다음해 2월 소련 제26차 대표대회에서 북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며 북한과의 우호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브레즈네프는 다짐

18) 趙倩, 北韓共匪俄關係之分析, 匪情月報 21卷 11期(臺北: 1979. 5), p. 33.

19) —, 金日成訪平後的東北亞形勢, 匪情月報 25卷 6期(臺北: 1982. 12), p. 35.

20) 文道彬, 親蘇露線과 세습체제 인정, 북한 143호(1983. 11), p. 141.

했다.²¹⁾

1983년 9월 1일 소련이 KAL 기를 격추하자, 中國을 비롯한 世界各國이 소련을 비난하였지만, 北韓은 23일에 소련을 지지하고 나섰다. “美帝”가 조종하여 사건을 유발시켜 놓고 되려 남을 무고한다는 것이다.²²⁾ 1983년 5월 23일, 金日成은 23년만에 소련을 公式的으로 방문했다(1966년 5월에 비밀방문은 있었다). 이때도 바로 中國의 對韓國 태도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소련이 北韓의 三者會談案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11월에 국경협정을 맺고 국경무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북한이 中國에 대해 불만을 갖는 원인을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中國의 對美政策: 1971년 中美和解가 이루어지자 어떤 기대를 가졌으나, 美國의 對北韓 정책에 조금도 변화가 없자 실망한 것 같다. 이는 中美關係에 대해 북한이 1972년과 1979년에 보인 반응을 보면 분명해진다. 韓美日 三角關係에 대항하기 위하여 中國과 軍事同盟을 맺었지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中美日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共同的 敵”에 대한 中國과 北韓의 인식이 一致하기 어렵게 된다.

(2) 中國의 對韓半島 정책: 中國의 對美·對蘇政策이 변함에 따라, 그 對韓半島政策도 영향을 받게 된다. “南朝鮮解放”이 北韓의 최종목표임에 반해, 中國의 對韓半島政策 目標은 이미 “解放”이 아니고 “緊張緩和”에 있다. 현재 中國의 모든 정책은 現代化에 초점을 두고 있다.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환경이 절대 필요하다.²³⁾ 中國은 國際主義 이름 아래 남의 內政에 간섭하던 時代는 이미 끝났다고 선언하고, 北韓의 武力統一 方案은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²⁴⁾

韓半島 정세의 안정과 관련하여 駐韓美軍 문제는 중요한 爭點이 된다.

21) Pravda, Feb. 24, 1981.

22) 同 15) p. 139.

23) 鄧小平, 目前的形勢和任務(1980.1.16의 연설), 「中共十一屆三中全會以來中央首要講話及文件選集 上冊(臺北: 中共研究雜誌社, 1982), pp. 307~308.

24) Peking Review No. 1, 1980, pp. 14~15.

中國은 표면상 그 철수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駐韓美軍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²⁵⁾ 美軍이 철수하면 韓半島에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고 있다.²⁶⁾

中國이 북한의 武力統一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이 있다. 軍事同盟에 의하여 北韓에서 戰爭이 일어나면, 中國은 參戰의 의무를 진다. 만일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中國의 參戰義務는 어떠한가? 胡耀邦이 日本을 방문했을 때, “南에서부터이건 北에서부터이건 한반도에 긴장을 조장하는 행동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²⁷⁾ 이로써 中國은 北韓이 攻擊을 받을 때만 방어의 책임을 진다고 推論할 수 있다. 이런 部分保障에 북한으로서는 불안을 느낄 것이고, 소련으로부터 확실한 安全保障을 받고자 할 것이다.

(3) 非毛化運動: 鄧小平은 집권 후, 非毛化에 주력하였고, 1982년의 제 12期 全黨大會에서는 毛系의 人士가 많이 축출되었다. 과거 후루시초프는 金日成에게 스탈린 格下運動을 요구하여 兩國 관계가 악화된 일이 있다. 鄧小平이 직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毛澤東 個人崇拜를 반대하는 운동을 다시금 보게된 金日成은 불쾌하지 않을 수 없다.

北韓과 中國 사이에 이런 몇가지 異見이 있긴 하지만, 中國은 최고 지도자들이 계속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한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북한이 소련에 급속히 밀착하여 소련 카드를 쓰는듯 했다.

물론 中國이 남한 카드로 북한을 경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한반도는 四強兩韓의 利害가 엉키어 있는 민감한 곳이다. 소련은 지나치게 북한과 밀착하여 中美日을 결속시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中國도 북한을 소련에 넘겨주고 한국을 취해야 할 이유가 아직은 없다.

25) 1979년 北韓의 정부수립 기념일에 人民日報는 駐韓美軍 철수를 거론하지 않았고, 中國의 「現代國際關係研究所」의 亞太室 室長 陶炳蔚이 1985년 9월에 발표한 논문에서 美軍撤收가 한국 통일의 전제조건일수는 없다고 하였다.

26) 安秉俊, 韓中 관계발전의 쟁점과 전망, 國策研究(서울: 1986년 봄), p. 193.

27) FBIS-China, Nov. 25, 1983. p. 25.

2. 一國兩制와 두개의 한국

經濟의 이익이라는 점에서만 보자면, 中國이 한국과 善鄰關係를 갖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中國이 고집스레 지키는 “中國은 하나”라는 입장이 두개의 한국을 받아드릴 수 없게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一國兩制”論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一國中國”의 주장

中國은 “하나의 中國”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美國의 “臺灣地位의 未定”²⁸⁾論이나 中華民國 支持政策을 맹렬히 비난해 왔다. 中國이 西方 국가들과 修交하는 조건은 “臺灣은 中國의 一部分”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1972年의 上海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²⁹⁾

中和人民共和國 정부는 中國의 유일한 合法 政府이다.……臺灣의 解放은 中國 內政으로 다른 나라를 간섭할 權利가 없다……. 中國政府는 「一中一臺」·「一國二政府」·「二個中國」·「臺灣獨立」 및 「臺灣地位未定」을 고취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결사 반대한다.

美國은 臺灣이 中國의 一部임을 승인하고 이에 대해 異義를 제기치 않겠다고 약속했다. 中國은 그와 國交가 있는 나라가 臺灣과 政府間 關係를 유지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 때문에, 中國은 韓半島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의 한국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南韓과 政府間 關係를 발전시킬 수 없는 것이다.

“一國兩制”論의 제기

中國은 1978년 12월의 11期3中全會에서 평화통일 방침을 정하고, 다

28) 2차대전 후, 미국은 毛澤東 정부의 관계수립에 관심이 있었고, 臺灣地位의 확정을 미루어 오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臺灣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29) 同 7).

음 해 元旦에 “臺灣 同胞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하여, 統一을 이루기전 잠정적으로 “一國兩制”를 실시하겠다고 그 構想을 발표했다. 1981년 9월 30일, 葉劍英은 臺灣에 대한 아홉가지 保障을 선언하여 “一國兩制”의 內容을 밝혔다.³⁰⁾ 1982년 9월, 대차 영국 수상이 中國을 방문하여 홍콩 반환 문제로 담판을 가졌다. 中國은 “자본주의 제도의 不變, 홍콩인에 의한 自治, 번영의 유지”를 보장하여, “一國兩制”의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그해 12월에 통과된 修正憲法 제31조는 “필요할 때 特別行政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행정구에서 실행되는 制度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法律로써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一國兩制” 구상을 法的 次元으로까지 승격시켰다.

1984년 홍콩문제에 대하여 中英間에 合意가 이루어졌고, 中國은 “50年間 홍콩制度의 不變”을 보장했다. 앞으로 홍콩모델을 표본으로 삼아, 本土의 사회주의와 臺灣의 자본주의가 잠시 並存하여 統一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한다.

“一國兩制”의 意義

“一國兩制”에 관한 資料중 제일 중요한 것은 鄧小平이 1984년 10월 瞭望週刊 記者와 행한 회견 내용이다. 그 요점만 추려보면,

- 첫째, 本土에서는 사회주의를, 홍콩과 대만에서는 자본주의를 실행한다.
- 둘째, 中國의 主體는 사회주의이나, 一部 지역에 자본주의를 허용하겠다.
- 셋째, 國際紛爭을 해결하는 방법이므로 한나라에서 두가지 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一國兩制”가 갖는 問題의 핵심은 “社會主義가 主體”라는 점에 있다. 中國이 자본주의의 效率性을 인정하기는 하나, 이것이 社會主義에 대한

30) 人民日報, 1981년 9월 30일.

신념에 흔들림이 있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단지 자본주의의 장점을 취하여 사회주의의 결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兩制”란 社會主義가 “主”이고, 자본주의는 “輔”인 主從關係가 된다. 결국 “一國兩制”란 中國이 우월한 地位에서 臺灣이나 홍콩에 寬容이나 은혜를 베풀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 中國의 통일조건은 갈수록 관대해져, 단지 中華民國이라는 國號만 취소하면 된다. 中華人民共和國이란 國號를 사용하지 않아도 좋고 그 고유의 명칭과 旗를 쓸 수 있으며, 外事權과 軍權을 갖는등 現行的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고 했다.

唯物史觀에 의하면, 社會主義統一을 실현하려는 과정에서 正反合의 변증법 원칙에 입각한 과도기를 설정할 수 있다. 그 과도기를 홍콩에서는 50年으로 잡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대한 鄧小平의 해석이 있다.³¹⁾

홍콩과 대만의 자본주의제도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 안정과 번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홍콩의 現行……제도와 생활방식이 1997년 이후 50년간 변치 않을 것을 보장한다.……이는 우리 中國이 現代化를 실현하는데에 50~60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50년간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社會主義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

“一國兩制”와 한반도 문제

어떠한 理論이든 처음에는 몇가지 애매한 概念에 불과하나, 여러가지 의견이 거듭 제기되고, 이것들이 종합·정리된 후에라야 概括的이고 명확한 用語로 總結되어진다. 엄밀히 말해서 “一國兩制”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1997년부터 홍콩에서 몇년동안 실험된 다음에 修整이 필요해지리라 생각된다.

아직 實行되지도 않은 “一國兩制”를 한반도에 적용하여 말한다는 것이 무리이지만, 鄧小平이 이를 한국의 統一方案으로 추천한바 있어, 순수한 學理에 기초하여 따져보고자 한다.

31) 同 22).

中國은 臺灣에 高度의 自治權을 인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즉 司法獨立·軍隊保有·고유의 금융과 화폐제도·外事權 등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이는 聯邦國의 地方政府보다 格이 높다. 그러나 聯邦이란 각각의 單位가 동등한 地位로서 서로 聯合하며, 中央政府나 各 地方政府나 모두 憲法에 의하여 그 權利를 보장 또는 제한받게 된다. 이런 점에서 中國 憲法 제31조가 말하는 特別行政區는 그 格이 상당히 떨어진다. 特區規定이란 「人大」(國會에 해당)에서 制定하는 法律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一國兩制”란 複合制의 特性을 갖고 있는 單一制 國家形態라고 中國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제31조의 効力基礎가 상당히 미약하다. 왜냐하면 中國憲法 제1조에 “……社會主義 제도는 中華人民共和國의 根本 제도로, 어떤 組織이건 個人이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려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事項은, 統一後의 臺灣은 外交權을 갖는 것이 아니고, 涉外事務를 처리하는 外事權을 갖게 된다. 이로써 中國이 한국과 修交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단지 實際의 필요에 따라 交涉만을 할 수 있는 것이다. 貿易 및 經濟協力·僑民事務·文化學術·體育 등 非政治性 事項에 국한된다.

현재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고려연방공화국 방안도 “一國兩制”라고 鄧小平은 말하고 있다. 한나라 안에 자본·사회주의가 並存한다는 形式面에서라면 틀림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並存의 方法에 있어 전혀 다르다. 中國에서는 中央政府인 中華人民共和國이 地方政府인 臺灣(또는 中華臺北)에 外事權 따위의 自治權을 施惠하는데 반해, 고려연방공화국에서는 南北이 同等한 一邦이 되어 內政을 처리하고, 外交權은 聯邦에 귀속시키게 된다.

中國이 “一國兩制”를 그 統一方案으로 採用하여, 韓國과의 각종 交流를 용이하게 하는 理論的 法的 근거를 마련했음에 틀림없지만, “一國兩制”의 테두리 안에서는 修交의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

V. 結 語

이처럼 中國은 北韓과의 관계나 臺灣問題 때문에, 韓國과의 關係改善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年代에 이르러 韓中關係에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우리는 한때, 北京에서 열리는 國際行事에 참가할 우리 代表가 비자를 받은 것 만으로도 기뻐하던 때가 있었다. 우연히 오게된 中國人들을 거국적으로 극진히 환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努力이 現代化를 추진하는 中國의 필요와 부합되어 兩國關係는 조금씩 진전되어 왔다. 韓國은 이제 敵國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나 中國과의 關係改善에 조금해서는 안될 것이다. 中美兩國은 解氷에서 修交까지 거의 10년이 필요했다. 韓中 상이에는 더 많은 장애들이 있다. 兩國이 똑같이 分斷의 한쪽일뿐 아니라, 그 다른 한쪽과는 각각 긴밀한 友好關係를 갖고 있다. 거기에 美蘇日의 利害까지 엉키어 있다. 현재 알타체제의 調整이라는 時點에서, 韓半島에서의 긴장완화에 美蘇의 利害가 一致되고 있어, 북한의 소련카드를 그리 위협적이지 못하다. 더구나 韓蘇관계 개선에 따라 北韓은 中國카드를 행사코자 하는 조짐마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中國의 臺灣政策이 보다 중요한 關鍵이 된다. 결국 中國의 對韓政策은 그 實際需要와 臺灣政策을 축으로 하는 좌표 위에서 결정된다.

現段階에서 中國의 臺灣政策은 “一國兩制”이다. 이는 社會主義理論이나 民族主義를 근거로 하여 構想된 것이 아니라, 오직 實際 必要에 따라 發想되고 발전하여 왔다. 1978년 12월 16일에 中美修交가 이루어졌고, 보름후 元旦에 “臺灣同胞에 고하는 글”을 발표하여 特別行政區 개념을 제시하였다. 홍콩 수복을 위하여 中國은 “一國兩制”論을 具體化시켰다. 색깔에 상관없이 쥐를 잘 잡는 고양이로 選好하는 中國은 韓國에서 얻는 利

益이 중요할 때에는, “一國兩制”에 또 새로운 概念이나 解釋方法을 발전시킬 수 있다.

韓國이 中國에 接近함에 있어, 그들이 현재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中國은 天安門事件의 영향과 經濟危機로 그 改革開放 政策의 속도를 어쩔수 없이 늦추고 있지만, 이로 인해 中國이 북한과 밀착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후퇴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中國은 권력투쟁이라는 측면 이외도 하루 빨리 現代化 目標을 달성하기 위하여, 一絲不亂한 정책 집행에 지장을 주는 民主化 要求를 탄압하고 있다. 우리는 經濟發展에 대한 中國의 이런 절실한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의 外資도입과 선진 기술 습득의 需要와 實態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외교관계가 없어 經濟交流에서 당하는 不利益이 크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現段階에서 外交關係 수립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中國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 中國과 외교관계 수립에 성공하면 그 정치적 意義는 자못 크지만, 東歐 및 소련과의 관계가 성립된 지금은 실질관계 발전에 주력하여 필요 이상의 값비싼 댓가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長期的인 國益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中國은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때 그들 스스로 韓中 關係수립에 유리한 명분을 찾아내고, 理論的으로도 새로운 解釋을 시도 할 것이다. 더우기 最近의 소련 및 東歐와의 관계발전은 어떤 형태로든 中國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